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 기억과 기록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수집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생존자
- 증언방법 : 방문 인터뷰
- 문 의 처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획팀 ☎ 051) 629-8634

※ 생존자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39 Homepage <http://museum.ilje.or.kr>



# FoMo

Forced Mobiliz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Autumn 2020

Vol.16

## 성명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등 관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정부가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인 등 강제 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외'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규슈(九州) 소재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 일본 정부의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했다. (이하 생략)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근대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역사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재단 명의의 <성명서>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본 <성명서>가 아픈 역사에 대한 화해와 소통의 메시지가자 평화의 교량으로써 일본에 전달 되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 슬픈 영혼의 귀향

시·사진 황 동 준

그리움의 애간장  
나라 잃은 한恨 서린 절규  
달빛 아래 흔들리는  
조선의 봉선화가 그리웠다고

귀국길 기약 없는 징용의 땅  
피눈물로 그려보는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사랑하는 아내여  
고향의 들녘이 그리웠다고

이역만리 사할린  
화색빛 동토의 땅  
쓰러진 비석 무너진 봉분 가  
봄날은 언제 와 고국의 들꽃 피어나리



태태도 묻지 않은 낯선 땅에  
무슨 바람에 실려 왔던고  
무슨 사연으로 끌려왔던고

생사기로를 넘나들던  
열도列島 끝 숨 막히는 막장  
악마의 바람 자작나무 숲  
귀국길 기약 없는 어둠의 땅에서

눈물로 보낸 지 40년  
슬픔을 묻은 지 40년

해 지는 화태도樺太島 바다 건너  
그리운 고향 땅은  
저 하늘 저 달 아래 있건만  
80여 년 길고 긴 고난의 세월  
끝내 한 줌 재가되어 돌아왔다네





귀국선 아닌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 붉은 주단 깔렀다지만  
흰 모시 두루마기 적삼 걸치지 않으니  
귀향歸鄉인들 어찌 기쁘리

잔뜩 내려앉은 구름  
'투두둑 투두둑'  
가을비 소리에  
비로소 고국의 하늘을 올려본다네

한 무리의 제비  
망향의 탑을 돌며  
산 밑 자락 봉안당奉安堂  
새 안식처라 위로하는구나!

아! 낯이여,  
편히 쉬소서  
고국의 땅에서 영면永眠하소서

올해 예정이던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해봉환은  
코로나19로 내년 봉환될 예정입니다.

# FoMo

Forced Mobilization

## CONTENTS



## PHOTO ESSAY 슬픈 영혼의 귀향

- 06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조치 및 성명서
- 08 위패봉안 신청 안내
- 09 유족지원사업 안내
- 10 중국 해남도 천인갱 현장 보전 관리 용역
- 12 기부안내
- 13 동아리지원사업
- 14 인문학 특강
- 15 강제동원 관련 사진집 발간 소개
- 16 KTX매거진 9월호 역사관 소개
- 18 도슨트 소식  
도슨트 인터뷰
- 20 기관 단신
- 21 언론보도
- 22 역사관 유물 수집 안내  
재단 출판사업 안내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등과 관련한

## 재단 성명서 발표

글 김희근

우리 재단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15년)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2020년 3월) 등 계속되는 한·일 간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과 후속조치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난 6월 29일 재단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측에 해당 성명서를 공식 전달한 재단은 향후 ▲강제동원 피해사실 등에 대한 세부조사 ▲생존 피해·관계자 구술채록 및 ▲학술연구·출판사업 ▲전시·문화행사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명서

-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등 관련 -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정부의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인 등 강제 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외'한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 ◆ 한국 정부는 일본 규슈(九州) 소재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 일본 정부의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했다.
- ◆ 이에 대해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근대산업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동원 된 후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한 일이 존재하며,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 ◆ 그러나 최근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일본 정부가 당초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강제동원 된 한국인과 관련해 학대와 차별이 없었다'는 인터뷰 등 왜곡된 전시물이 설치·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과 동시에 국내·외 약 780여 만 명이 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
- ◆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한 규슈(九州)와 야마구치(山口) 강제동원 작업장은 약 8백 여 개소 이상이며, 이 중 군수공장은 140여 개소에 달한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강제동원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광업, 일본제철, 스미토모, 히타치 등으로, 이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3만 7천 여 명, 현지 사망 2천5백 여 명, 행방불명 6백7십 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 이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등은 1945년 8월 9일 원폭 투하 당시 및 그 이후 한국인 강제동원자들을 복구 작업에 투입하여 나가사키에서만 1만 여 명의 사망 및 총 2만 여 명이 원폭 피해를 입었다.
  - \* 특히 하시마는 강제 노역된 한국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작업장이었다. 철저하게 고립된 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폭력, 차별, 익사 사고 등은 지옥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국인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 ◆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의 이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 강요된 죽음의 노동 등이 서려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강제 노역의 실태가 빠져 버린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내용은 근대산업시설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부정확한 역사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 이에 우리 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신하여, 일본이 진실로 근대산업시설의 참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빛의 이면에 드리워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과 그 역사적 사실 또한 올바르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29.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기억의 터

## 위패관에 안치를 원하는 유족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1. 대 상 :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및 행방불명 중 연고가 있는 유족
2. 기 간 : 상시 접수(2020년 8월부터)
3. 제출서류
  - 가. 2020년 위패제작 신청서 1부
  -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라. 대일항쟁기위원회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1부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  
(수송동, 이마빌딩) 위패봉안사업 담당자 앞
5. 위패봉안 안내 : 매년 한식, 추석 전후로 개인별 유선 안내
6. 문 의 : 기획홍보국 서인원 팀장(02-721-1819)
7. 주의사항 : 희생자 위패 추가 제작시 배우자 위패 제작 신청 가능

## 2020년 유족지원사업 신청 마감 및 지급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한 유족지원사업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제출 서류 중 부족한 부분은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할 예정이며 공정한 선정 과정을 거쳐  
유족지원금을 9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지급금액 : 약 50만원 (신청자 1인)
2. 지급인원 : 200여 명
3. 지급순위 : 각 순위 내 선정 기준은 고령자 우선 (법정 생년월일 기준)
  - 가. 1순위 : 90세 이상 유족
  - 나. 2순위 : 85세 이상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 다. 3순위 : 85세 이상 유족 중 차상위 계층
  - 라. 4순위 : 80세 이상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 마. 5순위 : 그 외 유족 중 고령자 우선
4. 문 의 : 기획홍보국 이병희 (02-721-1813)





# 중국 해남도 천인갱을 가다

## 보전 관리 사업 실시

유해 발굴 · 봉환 · 안치 체계적 진행

글·사진 이정은



중국 해남도 삼아시(三亞市) 남정촌(南丁村)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되어 집단학살 당한 조선인 희생자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천인갱(千人坑)이 있다. 이곳은 1999년 박선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유해발굴팀에 의해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하루 동안 1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되었으나 보존 상태가 안 좋았고 현지에서 보존 처리를 할 수 없어 통나무 비문을 세운 후 마무리되었다.

그 후, 2000년 1월 충북대학교 유해발굴팀은 일주일 동안 천인갱의 약 1/100(8×10m) 바둑판식 면적 구획 8개 중 6개 구획에서 약 1m정도 간격을

01. 1999년 천인갱 시굴 현장  
(사진: 박선주 교수 제공)

02. 1999년 박선주 교수의  
천인갱 시굴 현장 작업 모습  
(사진: 박선주 교수 제공)

03. 2019년 2월 발굴된 유해

04. 2019년 2월 천인갱 내 오염 모습

05. 1999년 시굴 현장에 세워진 비문  
(사진: 박선주 교수 제공)



두고 나란히 매장된 유해 140여 구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유해 중 5구는 보존 처리된 후 사각 유리관에 안치되었고, 나머지 유해는 항아리에 넣어 영락제(永樂濟)에 안치되었다.

2019년 2월 사단법인 하이난천인갱희생자추모회(2019년 4월,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는 발굴 전문가와 동행하여 2000년 발굴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6m지점 3번째 한글 비석에서 서쪽 3m 지표로부터 35cm(200×80cm)를 시굴했다. 그 결과 강건한 사지뼈 등이 발굴되었다. 발굴에 참여한 전문가는 강건한 뼈가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DNA 추출 및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속한 발굴 작업으로 유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천인갱은 20여 년 간 사단법인 하이난천인갱희생자추모회의 전신인 (주)신우농업종합개발이 관리해 왔다. 1999년 중국 정부로부터 영구 임대한 천인갱 주변 토지 8만 2,644㎡ 중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부지허가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약 1,652㎡가 2029년까지 사용이 유효한 상태이다.

2019년 8월 우리 재단의 현지방문 결과, 천인갱 내 시설물 영락제에는 80여 구의 유해가 보관 중이었으나 보안 및 보관상태가 불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천인갱 안은 주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버려진 오물로 오염되는 등 현장 유지 관리 및 보안이 시급한 상태였다.

재단은 천인갱의 시급한 현장 보전을 위해 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올해 초부터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현재는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중국 해남도 천인갱 현장 방문이 어려워 현지 연구자 허수동 교수(삼아학원 사회학과)팀과 관계자를 통해 천인갱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 천인갱의 현장 보전 관리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해 발굴과 국내 봉환 및 안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 해남도 삼아시(三亞市)

남정촌(南丁村)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되어 집단학살 당한

조선인 희생자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천인갱(千人坑)이 있다.







##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하다

### 기부 현황

|                    |          |                      |             |
|--------------------|----------|----------------------|-------------|
| • 1월 5일 김건우, 박지우 님 | 3,000원   | • 5월 3일 김건우 박지우 님    | 3,000원      |
| • 1월 8월 차수현 님      | 300,000원 | • 5월 19일 이다운 님       | 95,000원     |
| • 1월 8일 변종택 님      | 100,000원 | • 6월 1일 이윤정 님        | 10,000원     |
| • 1월 17일 이다운 님     | 65,000원  | • 6월 7일 김건우, 박지우 님   | 3,000원      |
| • 2월 7일 이자성 님      | 300,000원 | • 6월 10일 의성여고 반크동아리  | 500,000원    |
| • 2월 22일 이다운 님     | 60,000원  | • 6월 18일 이다운 님       | 140,000원    |
| • 3월 1일 김건우, 박지우 님 | 3,000원   | • 7월 1일 이윤정 님        | 10,000원     |
| • 3월 1일 박정아 님      | 30,000원  | • 7월 5일 김건우, 박지우 님   | 3,000원      |
| • 3월 1일 이윤정 님      | 10,000원  | • 7월 27일 이다운 님       | 320,000원    |
| • 3월 11일 이다운 님     | 95,000원  | • 7월 28일 견자희(법인)     | 12,000,000원 |
| • 4월 1일 이윤정 님      | 10,000원  | • 8월 2일 김건우, 박지우 님   | 3,000원      |
| • 4월 2일 이다운 님      | 220,000원 | • 8월 20일 박정아 님       | 50,000원     |
| • 4월 5일 김건우, 박지우 님 | 10,000원  | • 8월 24일 목천중학교 학생동아리 | 158,000원    |
| • 5월 1일 이윤정 님      | 10,000원  | • 8월 24일 목천중학교 학생동아리 | 100,000원    |
|                    |          | 지도교사 이강현 님           |             |

### 기부 방법

가. 기부문의 후 지정기탁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문의: 운영관리국 기부업무 담당자(02-721-1812)  
나. 작성 지정기탁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팩스(02-721-1882) 또는 메일(ham1004@ilje.or.kr)로 제출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https://www.ilje.or.kr>)를 통해 기부내역 및 사용내역을 공개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대상입니다.

## 우리의 작은 노력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날까지

천안 목천중학교 학생동아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킴이’ 활동 소개

글·사진 이강현 목천중학교 교사

지난 7월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천안 목천중학교 학생동아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킴이’가 기획한 것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알리는 안내판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캠페인 동참을 유도했다.

목천중 학생동아리는 터미널 캠페인뿐만 아니라, 등굣길 캠페인, 배지 판매 및 수익금 기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인터뷰 등 많은 활동을 진행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기부금 마련을 위한 자선 바자회 개최, 강제동원 생존자 인터뷰 유튜브 업로드 등도 계획되어 있다.

### 목천중학교 학생동아리 활동 요약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실 알리기 등굣길 캠페인 활동: 2020년 6월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실 알리기 천안터미널 캠페인 활동: 7월부터 격주 1회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허준 웅(목천읍 거주) 인터뷰: 7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배지 판매 및 캠페인 활동: 7월
- 광복절 75주년 기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실 알리기 포스터 전시(독립기념관) 및 피해자를 위한 헌정 피아노 연주곡 및 낭독문 발표: 8월
- 연주곡과 낭독문 영상(<https://youtu.be/WurEjPJYvw>)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배지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및 지도교사 기부: 8월





## 역사관 인문학 특강 성황리 개최

6월 김광열 교수 · 7월 최영호 교수 · 8월 길윤형 기자

글·사진 이정섭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문학 특강이 6월부터 월 1씩 총 3회 개최되었다. 6~8월 개최된 역사관의 인문학 특강은 김광열 교수(광운대학교), 최영호 교수(영산대학교), 그리고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김광열 교수와 최영호 교수는 각각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병력동원과 일제강점기 이후 강제동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징병과 징용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강제동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길윤형 기자는 흔히 가미카제라 불리는 전투기 자살특공대의 이야기를 다루며, 가미카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풀어내며 수강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역사관에서는 인문학 특강을 추가로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이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 및 신청은 역사관 홈페이지(<https://museum.ilj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 김광열 교수 02 김광열 교수 03 최영호 교수 04 인문학 특강 전경

## 일제 강제동원, 지워지면 안 되는 역사를 기록하다

국가기록원, 강제동원 관련 사진집 '기억해야 할 사람들' 발간

정리 장민성



- 01 '기억해야 할 사람들-강제동원, 김광열 기록으로 말하다' 사진집 표지
- 02 1988년 나가노시마 화장장에서 바라본 하시마. 하시마에서 사람이 죽으면 나가노시마 화장장에서 화장을 실시했다.
- 03 1976년 요시쿠마 강에 남아있는 조선인 숙소
- 04 김광열 일기장. 1975년 6월 1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 조사 과정, 자료 입수 경로 등이 자세히 담겨있다.

국가기록원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기억해야 할 사람들-강제동원, 김광열 기록으로 말하다'를 발간했다. 사진집 제작에는 역사관에서 사진 52점을 제공해 발간의 의미를 더했다.

사진집은 고(故) 김광열 선생이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문서와 사진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주요 내용은 하시마(군함도), 다카시마 등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탄광의 사진과 문서로 김광열 선생이 탄광 폐쇄, 도시개발 등으로 훼손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사진집은 1부 '김광열 기록을 말하다'와 2부 '강제동원의 흔적을 기록하다'의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김광열 선생이 강제동원 현장을 다니며 작성한 기록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한다. 40년간

작성한 일기장, 50여 년간 후쿠오카 지쿠호의 지역 300여 개 사찰을 돌아다니며 조선인 유골, 위패에 대해 조사한 기록, 사찰에 남겨진 유골함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2부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변해가는 강제동원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시마·다카시마 탄광, 가이지마 탄광, 아소 광업의 강제동원 현장과 화장터, 위령탑 등이 훼손되어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담았다. 사진과 함께 김광열 선생의 메모도 넣어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기억해야 할 사람들-강제동원, 김광열 기록으로 말하다'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s://www.archives.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04



KTX매거진 9월호에 '부산 남구 역사 여행' 주제로 역사관 소개

# 기억해야 할 이 땅의 이야기



## 기억의 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에서 400여 미터를 걸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도착한다. 일제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다. 정부가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의 사람·물자·돈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였다. 생명을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은 인류사에 기록될 비극을 초래한다. 역사관은 그 참상을 담담히, 그러나 상세하게 보여 준다. 몸의 상처와 아픈 기억을 형상화해 곳곳이 움푹 파인 건물로 들어간다.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기억의 터널’을 마주한다. 강제 동원된 군무원, 노무자, 군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관람객과 걷는 영상 작품이다. 어둠이 감은 터널에서 강제 동원된 이들은 실루엣이 되어 과거로 향한다. 형체만 가물거리는 무명의 피해자들이 처연한 발걸음을 내딛고, 그들 위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불러 봤네”라는 글귀가 흔들린다.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해서 삶까지 하찮았겠는지. 모두 부모에게서 태어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던 똑같은 사람이었다. 780만 명으로 추산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를 투영한 실루엣에 관람객의 그림자가 겹쳐진다. 터널이 끝날 즈음엔 강제 동원의 시작점에 선다. 물자를 정부에 내놓을 때 쓰는 단어인 ‘공출’을 사람에게 갖다 낸 야만스러운 역사의 잔재를 전시한 공간이다. ‘공출’된 사람들이 사용하던 수첩 같은 일상의 흔적과 반드시 소지해야 했던 일장기 등 강요된 충성의 증거가 여기저기 놓였다. 영화 세트장처럼 구성된 전시실은 그때의 비극을 상상 속에서 끄집어낸다. 성히 나오지 못할 탄광으로 끌려 들어간 노무자, 비좁은 방에서 이해하기 힘든 몸짓을 받아 내야만 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가슴 저미는 이야기들이다. -KTX매거진 9월호의 ‘이 계절 이 여행’ 중 발췌-

성히 나오지 못할 탄광으로 끌려 들어간 노무자, 비좁은 방에서 이해하기 힘든 몸짓을 받아 내야만 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가슴 저미는 이야기들이다.





## 제4기 도슨트 선발 및 양성교육



글·사진 조나은

지난 7월 11일 정혜경 대표연구위원 강의 모습  
지난 7월 12일 유현대 도슨트의 전시해설 시범 모습



역사관은 전시해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1개월간 제4기 도슨트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모집은 홈페이지, SNS 홍보와 더불어 방송사 홍보도 진행해 많은 관심을 확인했다. 모집 과정에서는 기존과 달리 리포트 제출을 평가 항목에 추가해 건의 사항을 받는 등 변화하는 역사관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그리고 선발된 29명의 도슨트에게는 8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개월의 수습 기간 후 도슨트 임명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역사관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특별 강연을 제공해 역사 지식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11일~12일 이틀 동안 실시한 특별 강연에는 김인덕 청암대학교 교수,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했다. 강연은 박물관학,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를 주제로 진행됐다.

## “자타공인 최고의 도슨트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싶다”

– 제3기 도슨트 김일수 님 –

글 장민성

김일수(79) 도슨트는 자원봉사 누적 1만 시간을 달성해 지난 2018년 부산자원봉사자대회에서 자원봉사 명예장을 수여받은 부산의 슈퍼히어로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경로당 수지침 봉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기대공원 자연문화해설 봉사, 현재 역사관 도슨트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도슨트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Q 역사관 도슨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8년 지인에게 역사관 도슨트 모집을 전해 듣고 시작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부산 이기대공원의 자연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도슨트 활동에 거부감은 없었다. 2018년 도슨트 모집에 합격해 양성교육, 해설교육 과정을 거쳤고 2019년에 도슨트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도슨트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다.

### Q 역사관 도슨트 활동 중 보람을 느낄 때는?

역사관을 방문한 남녀노소, 개인, 단체 불문하고 관람객이 해설 중이나 해설이 끝나고 나에게 “감명 깊게

잘 들었다”, “몰랐던 것을 많이 배우고 간다”, “지인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다”, “함께 기념촬영 부탁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 또 명함을 주며 본인의 지역에 오면 연락을 달라거나 기념이라며 조그만 수첩을 주고 가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어느 중국인 관람객이 꼭 껴안아 준 일도 있었다.

### Q 역사관 도슨트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화는?

한 번은 일본인 관람객 9명이 역사관을 방문한 적 있다. 일행 중 학생 2명이 일본군'위안부'를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해 전시 해설이 끝나고 추가 설명까지 진행한 일이 있다. 나머지 일행인 어른들이 오히려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가슴이 무너진 날이었다. 이런 일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Q 역사관 도슨트 활동의 각오나 목표는?

부단히 배우고 공부하는 도슨트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역사관의 다른 도슨트들과 마찬가지로 자타공인 최고의 박물관, 미술관 해설사가 되는 게 목표이다.



01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사무실 이전

지난 8월 지원단이 서울시 KT광화문 빌딩에서 세종시 KT&G 세종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

### 호주 추모조형물 내 조경 보강 추진

지난 8월 호주 블랙타운 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추모조형물 내 조경 보강을 추진한다.

03

### 강제동원 피해 민원창구 ‘만남의 장’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지속적인 민원창구 ‘만남의 장’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특별위원, 자문위원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04

###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연기

지난 9월 11일 예정되었던 위령제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10월 16일로 연기한다.

05

###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사업 취소

오는 10월 예정되었던 유해봉환 사업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취소한다. 향후 유해봉환 사업은 2021년 10월 실시 예정이다.

06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추진

오는 11월 제주도에서 한·일 연구자 20명을 초청해 유해봉환의 현황과 과제, 유해를 통해 바라본 기억과 추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추진한다.

07

### 국외추도순례 사업 변경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외추도순례 사업을 국내추도순례, 구술채록 등으로 변경 추진한다.

08

### 일본·중국 지역 유해실태 및 실지조사 사업 변경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외 지역 유해실태 및 실지조사 사업을 국내 안치 유해봉환 실태조사, 위패관 운영 등으로 변경 추진한다.

09

### 역사관 상설전시실 부분 정비 사업 추진

역사관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전시실 조성 사업을 상설전시실 부분 정비로 변경 추진한다.

10

### 피해자 윤병열 유가족 역사관 방문



지난 8월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윤병열 씨의 따님을 포함한 가족이 역사관을 방문했다. 역사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윤병열의 이야기’ 코너를 마련해 윤병열 씨의 기증유물을 공개 중이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본 왜곡된 산업유산정보센터 바로잡아라”  
- 국제신문 2020.07.03.

- [영상K]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KBS 2020.07.08.

- 위안부 소녀 12명의 기록, 일본어판 발간 추진  
- 연합뉴스 2020.08.04.

- 일제강제동원역사관 75주년 광복절 맞이 행사  
- 국제신문 2020.08.12.

- 광복 75주년, 영화로 만나다…  
오늘 국제영화제  
- 이데일리 2020.08.14.

- 영화로 되살아 난 ‘독립의 혼’,  
제5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 개최  
- 시사저널 2020.08.14.

- ‘강제동원 광산’ 日,  
세계유산 시도…또 흔적 지우기  
- SBS 2020.08.15.

- 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웃고 있는가  
- 더팩트 2020.08.16.

- 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0년 유물 구입 접수…내달 19일 까지  
- 국제뉴스 2020.08.19.



- 일제강제동원역사관, 23일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주제 ‘특강’  
- 뉴시스 2020.08.20.

-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물 구입 추진 등  
- 오마이뉴스 2020.06.19.

- “폭탄과 총알이 5~6월  
소낙비 오듯 하는데…”  
- 국제뉴스 2020.08.21.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태평양전쟁 실기집 기증 받아  
- 부산일보 2020.08.23.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世界の人へ(세계의 사람에게) - 조선인 피폭자의 기록」 8mm 영화필름  
(2019년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기증)

군함도 강제동원 피해자 故 서정우 씨의 나가사키 미쓰비시의 강제동원과 조선인 피폭 증언을 담은 기록 영화

##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노무자, 군인, 군무원, 여성)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문서, 사진, 편지, 무기, 군복 등 의류)
- **문의처**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획팀 ☎ 051-629-8615

※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 피해자의 기록을 역사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기집 출판



故 장윤만 님 수기집 (태평양전쟁실기집)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료 출판

- **출판대상** : 강제동원 피해자의 수기집, 체험집 등 원본 사료류
- **진행절차** : 피해자/유족 출판 신청 → 발간위원회 심사 → 원고작성·해제 → 출판
- **문의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 02) 721-1825

※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